

4학년 1반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추웠던 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기운이 서서히 벌써 학교 운동장으로, 살짝 열린 교실 한 구석으로 냉큼 들어와 자리를 잡아가는 때입니다. 교실 유리창 밖으로 느껴지는 봄기운은 아이들을 자꾸 밖으로 유혹합니다. 새 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우리 4학년 1반 한마음 친구 얼굴들에는 많은 기대감으로 가득차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4학년 1반을 한 해 동안 맡게 된 **교사 신해리**입니다.

저는 올해 교육경력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2018년 2학기 문화초에서 과학전담으로 아이들과 인연이 있어 저에 대해 들으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나 문자, 필요하시면 방문하셔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느껴지는 고민을 함께 나누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사랑 아이 사랑'을 교육이념으로 하여 제가 섬기는 하나님과 사랑스런 아이들 그리고 존경하는 학부모님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 1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기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을 통해 아이들이 소속감이나 협동심을 다져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한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은 4학년 1반이라는 이름보다는 4학년 '**한마음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질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 한은 一.大.元.正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도입하여 '하늘 . 바다 . 우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즉 **하늘 닮은 높은 꿈을 품고, 바다 닮은 깊은 생각을 하며(지혜를 가지며), 우주 닮은 넓은 사랑을 베풀자**는 뜻입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 '하늘, 바다, 우주 닮은 한마음 어린이'가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아이들은 제가 '한마음반'을 사용한 '일곱번째 아이들'이라 **한마음 7기**로 생활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학급 운영에 관해 여러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만 후에 '한마음 통신'을 통해 차차 한 가지씩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교육은 결코 교사 혼자만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과 학교간의 상호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보다 효율적인 아이들 지도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전화나 문자(010-8833-1826), 스마트폰(카카오톡)이 있어 보다 편리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급 경영에 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및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언제나 즐겁고 신나는 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행복하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3월 4일

4학년 한마음반 담임 신해리 드림